

1930年代 韓國近代住宅에 나타난 속複道型 日式住宅의 影響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과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주택평면을
중심으로-

安 聲 浩

((주)시반건축사사무소)

金 純 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근대화는 국제적인 문화이식과 그에 따른 변동의 토착화라는 두 가지 상관된 역사적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¹⁾ 따라서 문화이식은 근대화에서 매우 본질적인 개념이다. 문화이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도시주택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외래주택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9세기말 이후 이식된 일본의 주택과 1960년대 이후 도입된 서구의 주문화가 그것이다. 한국 도시주택에 서구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일본주택의 영향도 빠뜨릴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식주택은 한민족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중 일식주택의 건설정도를 보면 1921년 京城에 건설된 주택 1,495棟 중 日式住宅이 875棟으로 전체의 60%에 이르며²⁾ 1935년판 『朝鮮年鑑』에 실려있는 1933년도 京城府의 국적별

주거통계를 보면 1933년 일본인의 주택이 京城 전체 주택의 약 33.6%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 두 집 건너 한 집이 일식주택이었으니 한국주택이 일식주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에 건설된 일식주택에는 전통적인 일식주택도 있었지만 일식주택이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속복도형 주택⁴⁾이 소위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었다.⁵⁾ 일본을 통해 서구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일식주택이 한국인들에게 근대화된 주택, 문화주택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을 이야기할 때 일식주택의 이식과 영향을 빼놓기 어려

3) 京城日報社·每日新報社, 1935년판 『조선년감』 경성부판

4) 일본근대주거사를 보면 1910년을 전후하여 소위 中廊下形이라는 和洋折衷式의 주택형식이 일본의 도시중산층 주택으로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에도 이 和洋折衷式 中廊下形의 주택은 합방 이전부터 관사로서 이식되고 있었으며 강점기간 중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건설되어 한국인에게 근대식 주택으로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和洋折衷式 中廊下形을 속복도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5) 笹慶一, 朝鮮に於ける住宅の變遷, 『朝鮮』, 1938. 2., 108쪽

1) 김경동, 근대화의 여러 유형, 『한국사회 60년대 70년대』, 범문사, 194쪽

2) 동아일보 1922. 10. 25일자

운 것이다.

아직 한국주택의 근대화·서구화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일식주택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식주택이 이식되었던 상황이 강제적·타율적이어서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타율적이라 하여 외래주택과의 갈등과 충돌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에 이식된 외래주택의 하나로서 일식주택이 가지고 있던 근대적 성격과 한국주택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고찰의 하나로서 일제강점기 일본 근대주택의 이식이 동시대 한국주택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일제강점기 한국주택에 관한 주거사적 연구가 아직 많지 않아 시기구분을 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1920년대 이후 주택개량운동의 전개와 함께 한국주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1930년대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실무활동이 시작되고 근대적인 작가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30년대 한반도가 공업화되고 민족자본이 형성되면서 근대적인 주택을 요구하는 한국인 자본가 계층이 나타난 결과이다. 192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된 주택개량운동의 축적도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사회단체나 지식인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주택개량운동에 한국인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과 계획안은 근대적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에 의한 최초의 작가주택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에서 주요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과 계획안은 모두 20여동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⁶⁾ 이 중 실물주택으로서 평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시기도 193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주택은 그량이 전체 주택에 비하면 소수이고 그 계층적 성격도 상류의 고급주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축가를 보더라도 일본인의 설계에 의한 것도 있고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것도 특정인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이 주관하고 있던 건축전문지에 한국인의 주택이 수록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들 주택이 일제강점기 한국주택의 근대화에 의한 성과를 일정 정도 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30년대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대사회적인 발언이 행해지고 근대적인 의미의 작가주택이 출현하는 시기로서 또 다른 의미로 한국근대건축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운동과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주택평면을 중심으로 1930년대 한국근대주택에 나타나는 일식주택의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경제적 빈곤과 주택난 때문에⁷⁾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과 작가주택이 대중과 유리된 소수 계층의 경향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래주택의 영향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그러한 영향은 소수의 고급주택에서 먼저 시작

6) 임창복, 일제시대 한국인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 10. 참조.

7) 1939년 조선건축회에서 경성에 있는 중류주택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선식 중류주택의 규모는 대지가 약 20평, 건축면적이 약 15평 정도에 불과하고 (第3部委員會, 朝鮮に於ける中流住宅調査第一次報告, 『朝鮮と建築』, 제19집 1호, 3-38쪽 참조)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도시주택난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경성의 경우 1944년 주택부족율이 40.25%에 달하고 구릉지에 토막을 파고 생활하는 토막민도 1941년에는 7,286호 37,020명에 이른다. (土幕民의生活標準と衛生生活, 『朝鮮と建築』, 제22집 3호, 13-15쪽, 문홍길, 개화기이후 한국 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102쪽에서 재인용)

되기 마련이다. 주택양식은 쉬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고급주택을 모방하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소수의 상류주택이 먼저 외래주택을 고급주택의 모델로 삼아 변화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중류주택과 서민주택으로 확산되는 것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과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인의 주택을 중심으로 1930년대 한국근대주택의 평면에 나타나는 일식주택의 영향에 관하여 알아본 것이다.

2. 1930년대 한반도의 일식주택

일제강점기 한국주택과 일식주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식주택의 이식과 전개상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식주택의 이식과 전개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지면의 제한이 있고 본 연구의 목적이 일식주택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절에서는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주택 중 근대화된 문화주택으로서 당시에 가장 널리 지어졌던 和洋折衷式 속복도형 일식주택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⁸⁾

2-1.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성립

일본근대도시단독주택의 성립과 전개에 관해서는 木村德國의 연구⁹⁾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8)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일식주택의 평면유형을 나누어보면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1920년대 이후 근대화된 주택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朝鮮と建築』에는 관사가 54개동, 은행사택이 20개동, 회사사택이 9개동, 민간 주택이 30개동 모두 113개동의 일식주택 평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연립형 관사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102동의 평면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전통적인 '田'자형의 평면을 보여주는 빛마루형이 20개동으로 17.7%에 달하나 대부분 규모가 20평 이하인 소규모 관사이다. 30평 이상의 주택은 대부분 속복도형으로 모두 91개동으로 전체주택의 76.9%이다. 30평 이상의 주택에서 속복도형이 아닌 것은 6채에 불과한 것이다.

9) 木村德國, 方法論的序章,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19,

일본도시단독주택의 성립을 주택양식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188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서구주택의 영향으로 화양절충식 속복도형 주택이 성립한 후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도시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양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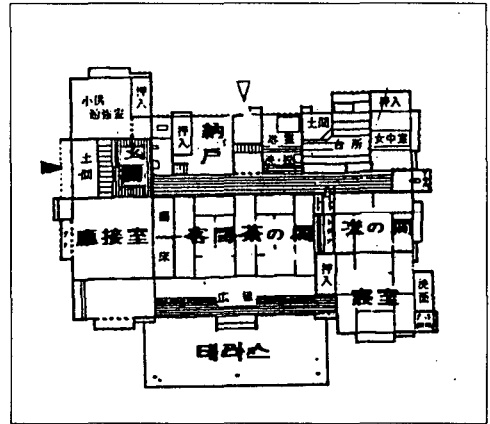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에 건설된 속복도형 주택의 평면¹¹⁾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근대화·서구화된 평면유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화양절충식이라 함은 양식의 응집질이 일본식 주택에 병치되어 있는 평면상의 특징을

1958. 7.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大正時代の住宅改良と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18, 1958. 5.

昭和初期の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展開と融合,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0, 1958. 12.

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史的位,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住宅洋風化と明治大邸宅』, 『明治時代の都市住宅』, 『大正から昭和へ』 (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10) 속복도형과 함께 木村德國은 거실중심형을 일본근대도시단독주택의 중요한 유형으로 본다. 거실중심형은 주택의 중앙에 서구식의 거실이 놓이고 이 거실이 통로의 역할을 겸하면서 거실 주위에 다른 실들이 배치되는 평면유형이다. 서구의 유희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주택의 중앙에 거실이 놓인다는 점이다.

11) 木村德國,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様式の成立, 5쪽에서 옮김

가리키는 것이고 속복도형이라 함은 주택 평면의 중앙에 속복도가 있어 주거공간을 거주부와 종속부부로 나누는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화양절충식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성립은 일본식 주택에 양식의 응접실을 병치한 화양절충이 먼저 이루어지고 일본식 주택 내부에 속복도를 도입한 평면변화가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19세기말까지도 전통적인 일본주택의 평면들이 '田'字 모양으로 모여 있고 그 주위를 뒷마루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들간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고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려면 방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웠다. 접객을 중시하여 거주조건이 좋은 남쪽 방은 손님과 가장의 공간이었고 가족들은 북쪽방에서 지내는 정도였다.¹²⁾

이러한 전통적인 일식주택의 평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거주조건을 개선한 것이 속복도형 일식주택이다. 이 형은 속복도가 주택평면을 이분하면서 주택의 중앙에 있어 주택내의 동선을 담당한다. 최소한의 집중화된 평면 내에서 속복도에 모든 방이 접하게 하고 남쪽에 주거부를 북쪽에 종속부를 두어 주택내의 영역구분과 거주조건의 향상을 꾀한 것이다. 속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을 집약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속복도형 주택은 도시화로 인한 필지의 협소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서구주택을 동경하던 일본의 도시중산층에 의해 근대식 주택으로 널리 유행하게 된다.

(2)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이식

일본에서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도시중산층의 주택양식으로 정착되고 있을 무렵인 1910년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도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관사로서 이식되고 있었다. 구한국정부의 관건축조직을 장악한 일본인 건축기술자들이 그들이 사용할 관사로서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들여 온 것이다.¹³⁾ 경술국치 이후 관사가 속복도형 일

식주택으로 건설되고 있을 때 민간의 일식주택은 전통적인 일식주택을 그대로 이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재료도 일본에서 가져다 썼고¹⁴⁾ 한반도의 기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데다 건축적 질도 조악하기 그지없어¹⁵⁾ 일본인들조차 '바라크주택기'라고 부를 정도였다.¹⁶⁾ 관중심의 근대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일제는 관사를 통하여 주택근대화를 추진하였고 관리가 거주하는 관사란 일종의 모범주택시되는 것이었다. 속복도형 일식관사는 서양식 주택을 동경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서양식 주택에 불편해하던 관리계층에게 크게 호응 받았고 192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근대화된 문화주택으로서 경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된다.¹⁷⁾ 1920년대까지의 한반도의 건축활동이 관건축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듯이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이식도 관건축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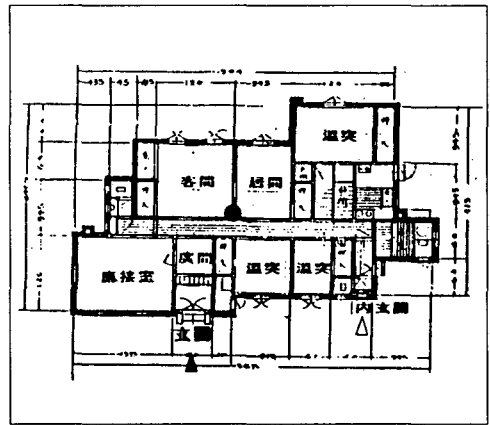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에 건설된 속복도형 관사의 평면¹⁸⁾

12) 19세기 말 일본주택의 주생활은 漱石의 소설 『吾輩は猫である』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平井聖, 『圖說 日本住宅の歴史』, 學藝出版社, 1980, 92-93쪽을 참조.

13) 줄고, 1910년 이전 일식관사의 이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집, 1997. 3.
 14) 笹慶一, 같은 글, 104쪽
 15) 大偶健南, 朝鮮に於ける内地人住宅の變遷, 『朝鮮と建築』, 제21집 3호, 18쪽
 16) 淺川伯教, 建築に對する側面觀, 『朝鮮と建築』, 제11집 8호, 2쪽
 17) 笹慶一, 같은 글, 104쪽.
 18) 『朝鮮と建築』 제6집 5호, 52쪽. 총독부 관방 회계과가

<그림 2>는 총독부 관방 회계과에서 시행한 관사의 평면도인데 <그림 1>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속복도형 주택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유사한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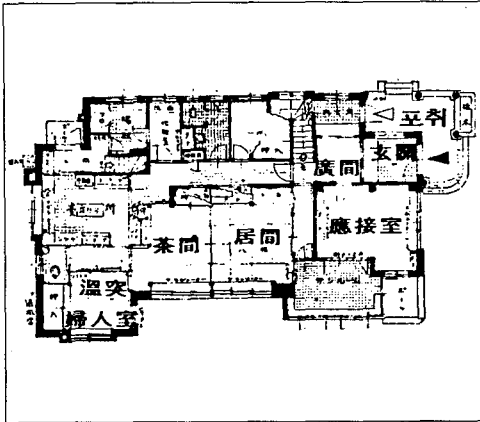


그림 3. 1930년대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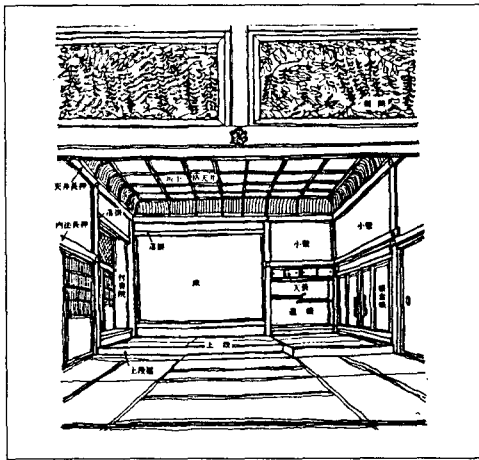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전통주택의 主座敷 구성

192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급속히 전파된 화양절충식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형 전체는 동서로 긴 사각형으로

설계하고 신의주에 건설된 35평형 관사의 평면도이다.

19) 吉田得次 주택 1층평면도, 『朝鮮と建築』 제13집 4호, 27쪽

집약적으로 조합되고 속복도가 동서로 관통해 한쪽 끝이 현관이 되고 나머지 한쪽 끝은 보통 부엌이다. 접객을 중시하는 일본주택의 전통 때문에 주택의 중앙에 있는 현관은 손님과 가정용의 현관이며 가족용의 현관은 별도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속복도의 남쪽은 거주부로서 현관 홀을 사이에 두고 양식의 응접실과 일본식 다다미방이 놓인다. 다다미방 중 居間 혹은 客間이라는 이름의 主室은 자시끼(座敷)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크기는 보통 8첩~10첩 정도이고 도꼬노마(床の間)²⁰⁾, 찌가이다나(遣い棚)²¹⁾와 후쇼인(付書院)²²⁾ 등 자시끼가자리(座敷飾)라 불리는 일본주택 특유의 실내 의장이 설치된다. 주실의 옆에는 찌기노마(次の間)라는 이름의 다다미방이 연속되고²³⁾ 남쪽에는 엔가와(縁側)가 있어 정원과 연결된다.

셋째, 양식의 응접실은 주인실이나 서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과 손님의 공간과 가족 공간의 구분은 전통적인 일식주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한다. 차노마(茶の間)는 대개 부엌 옆에 위치하며 식사실 겸 주부실로 사용된다.

넷째, 속복도의 북쪽은 가정부실, 부엌, 목욕

20) 무로마찌시대에는 다른 바닥보다 한 단 높은 바닥을 충칭하는 것이었으나 자시끼의 장식의 하나가 되었다. 武井豊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1994, 181쪽

21) 단 차가 있는 벽에 부착된 선반을 말한다.

22) 불박이식의 책상으로 엔가와를 향해서 창문이 있고 위치와 형식에 따라 엔가와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창형식을 히라쇼인(平書院), 도꼬와 직각방향으로 배치되는 형식을 후쇼인(付書院)이라 한다.

23) 일본주택에서 주실인 자시끼의 옆에 붙어 있는 다다미방을 찌기노마라 하는데 자시끼에 찌기노마가 연속되는 평면형을 쪼즈끼마(續き間)형이라 한다. 쪼즈끼마형은 일본에서 농촌주택과 도시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이다. 1. 후스마를 떼면 한 실이 되는 자시끼와 찌기노마의 2실을 公室의 핵으로 갖고, 대개 넓은 엔가와(廣縁), 현관방(塀間노마, 玄関の間)이 일체가 되어 하례공간을 구성한다. 2. 주실인 자시끼(座敷)에는 도꼬노마(床の間), 도꼬와끼(床脇), 불간 등의 자시끼장식이 있고 남향으로 내민 현관이 있는 등 격식성을 갖추고 있다.

탕 등 부대부분이 놓여지며 여기에 인접해 가족용의 내현관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3.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

3-1. 1930년대 문화주택의 의미

1930년대 한국주택의 경향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문화주택일 것이다. 1930년대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도 흔히 문화주택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또 그들대로 화양철충식 속복도형 주택을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식하고 있었다. 문화주택이란 말은 1920년대 이래의 문화라는 용어의 유행²⁴⁾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이었다. 1920년대 이래 주택개량운동의 축적과 3·1운동으로 높아진 민족의 자의식은 문화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개량·생활개선을 꾀하고자 하고 있었다.

문화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지만²⁵⁾ 한반도에서 문화주택의 의미는 일본에서의 주택경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1920년대의 문화주택·개량주택이 가리키는 것은 방갈로식의 서구주택이었다.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서구화의 열풍이 불면서 유행하였던 방갈로식 주택이 한반도에도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타났던 것이다. 박길룡이 1920년대 개량주택의 예로 들고 있는 C군의 집²⁶⁾이나 Y씨의 집²⁷⁾, 1920년대 주택개량운동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김유방의 이상주택안²⁸⁾ 모두 방갈로식 주택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주택의 직수입인 방갈로식 주택이 우리의 생활습관이나 기후와 맞을 리 없어 방갈로식 주택은 1920년대 초 잠시의 유행으로 그칠 뿐이었다.

1920년대 초 방갈로식 주택의 유행이 가시고 난 후에도 문화주택은 하나의 유행어이었다. 소위 '다이쇼오문화주의'라는 시대적 사조는 '문화'라는 단어를 구식을 탈피한 서구화와 합리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전통주택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면 모두 문화주택이라고 불리는 식이었다. 박길룡이 '유행성의 소위 문화주택'²⁹⁾이라 하여 구미식의 맹종, 일본식의 가미³⁰⁾, 재래식과 서양의 혼합, 재래형식의 고

위 문화설비 생활혁신에 분주하더니 어찌한 셈인지 양관이 불편하다고 그 양관 옆에 순 조선식으로 집 한 채를 지어 놓고 지금 그 집 가족들이 조선식 집에 거처하고 양관은 별로 쓰지 않고 혹 손님이 있으면 응접실로 쓴다고 한다. C군의 양관 구조는 벽이 벽돌조, 지붕은 인조슬레이트 기타 부분은 목조이고 외양은 독일 세계사에 가까운 듯하나 아무 통일이 없다. 현관을 지나서 중앙이 홀이 되고 그 홀 안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홀에서 바른 편 방이 가족실, 이 방으로 연속하여 식당, 주방, 변소가 있다. 2층은 침실이 2개 있고 서재와 욕실이 있다. 각 방의 난방은 모두 난로를 피우게 되었고 가구 등도 전부 양식이니 대체로 조선에는 조금도 없는 집이다. 朴吉龍, 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 조선일보 1930. 9.,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93-94쪽에서 재인용)

27) 지금부터 13년(1924년)정도 전에 일이지만 필자의 선배인 Y씨가 오랫동안의 유럽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귀국 후 빨리 자신의 생활부터 개선할 의미로 자신의 집을 세웠다. 이른바 개량주택인 것은 건평 50평의 2층 벽돌조로 훌륭한 양관인데 칸짜이는 아래층에 거간 식당 주방 서재 등이 있고 위층에는 침실 3실에 욕실 변소 화장실로 되어 있으며 물론 욕실 변소는 순양식이며 외국잡지의 그림에서 보는 그대로이다. 2년정도 지나서 Y씨는 애써 지은 양관은 빈집으로 두고 그 옆에 조선 재래식의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도 그 조선식 집에서 살고 있다. 流石의 Y씨도 그 양관이 살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다.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의 問題, 『朝鮮と建築』, 第16輯 8號, 24쪽.

28) 김유방, 문화생활과 주택, 『개벽』 제32호, 1923. 2., 와 우리가 선택할 소주택, 『개벽』 제 34호, 1923. 4. 참조

29) 박길룡, 유행성의 소위 문화주택, 조선일보 1930. 9.,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93-94쪽에서 재인용)

24) 1920년대 소위 문화정치의 시행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던 서구화의 영향으로 서구식을 본뜬 것이거나 새롭게 개량된 것은 모두 문화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현대나 범비도 전통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문화현대, 문화범비이었다.

25) 일본에서 문화주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1922년 동경평화박람회에 전시된 14채의 실물주택을 문화주택이라고 부르고 난 이후이다. 이 때 전시된 주택의 대부분은 당시 일본을 돌아치고 있던 주택개량운동과 주택서구화의 영향으로 거실을 주택의 중앙에 둔 서구식 주택들이었다. 이 후 이러한 서구식 문화주택은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扇田新 외 9인,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33-34쪽

26) C군은 귀국한 길로 주택을 개선하니 어찌느니 하고 양관을 지었는데 지은 당시에 양풍가구를 사들인다는 소

수³¹⁾ 등을 들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유행성의 문화주택이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문화주택이 아닌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³²⁾도 이러한 시중의 유행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렇게 문화주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는 것은 우선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전통주택을 개량하여 서구화와 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주택은 주택개량의 상징이나 고급주택의 전형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행성의 문화주택'이 아닌 한국인들에게 주택개량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원래의 '문화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박길룡은 유행성의 문화주택에 대하여 "우리의 '신문화' 문화주택은 洋式이나 재래전형은 물론 洋式과의 혼성체가 아니다"³³⁾라고 말하며 "우리의 장구한 생활이 낳은 재래형식을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樣式의 구축법을 구성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취미로 장식하여 현대 우리생활의 용기가 될 가구가 우리 생활의 표현"³⁴⁾이라고 하며 새로운 문

화주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길룡을 위시한 한국인 건축가들이 문화주택으로서 제시하고자 한 주택을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본인들이 문화주택이라며 짓고 있던 속복도형 일식주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

3-2.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

1920년대의 주택개량논의가 주로 사회지식인 계층에 의해 주도되어진 것에 비해³⁵⁾ 1930년대에 접어들면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주택개량안이 등장한다. 金允基³⁶⁾의 '健康住宅案', 朴東鎮³⁷⁾의 '우리 주택에 대하여', 洪胤植의 '住宅地 選擇概論'³⁸⁾ 등이 그 예인데, 주택개량에 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한국인 건축가는 朴吉龍이다.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에서 공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 중 평면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엌과 변소의 실내화와 각종 설비의 개량은 1920년대 주택개량운동에서부터 꾸준히 주장되어 온 것이니 여기에서는 그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장에서 우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택을 집중식으로 배치하여 정원을 넓게 두자는 것이다. 김윤기는 주택지를 선정함에 있어 대지의 규모로 교외 100평, 시내 50평 내외가 적당하며 건평은 12평, 15평, 25평까지를 중류주택으로 제안하는데 모두 건폐율을 60% 미만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³⁹⁾ 홍윤식은 주택지가 건강

30) 여기서 일본식의 가미란 '田'자형으로 방이 모여 있고 엔가와가 있는 전통적인 일식주택의 모방을 말한다.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에 채집되어 있는 함흥지방 洪聖淵, 韓洛用, 申錫定의 주택과 함경도 지방에서 박길룡이 보았다는 한일철충식 주택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일식주택의 모방은 일시적이긴 하나 경성과 각 지방에서도 상당한 기세로 유행했다고 한다. 今和次郎,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朝鮮總督府, 1924, 75-78쪽과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の問題』, 『朝鮮と建築』, 第16輯 8號, 24쪽 참조

31) 1930년대 중반 이후 주택업자들에 의해서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형 한옥으로 대표될 수 있다. 도시형 한옥은 전통주택이 도시화에 따른 필지의 분할과 협소화에 대응한 좋은 예이지만 박길룡은 도시형 한옥의 보급을 일식의 모방이나 양식의 모방에 만족을 못 느껴 재래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접처마의 사용이나 딱지소로의 사용 등 장식적 경향에 대하여는 매매를 위한 주택이라며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도시형 한옥에 관해서는 宋寅豪, 『都市型 韓屋의 類型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을 참조

32) 박길룡, 『주택건축의 기형적 동향-생활을 위함이나?』 매매를 위함이나?, 『朝光』 1935. 11., 197-201쪽 참조

33) 박길룡, 『문화식 별장』, 동아일보, 1932. 7. (최순애, 같은 논문, 99-100쪽에서 재인용)

34) 박길룡, 유행성의 소위 문화주택, (최순애, 같은 논문, 98-99쪽에서 재인용)

35) 1920년대 주택개량운동의 전개에 관하여는 金晶我,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2와 임창복, 같은 논문을 참조

36) 김윤기, '유일한 휴양처 안락 좋은 어떤 곳에 세울까', 동아일보, 1930년 9월 27일~30일

37) 박동진, 우리 주택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1. 3. 13.부터 14회 연재

38) 홍윤식, '주택지 선택개론', 『朝光』, 1937. 6., 372~379쪽

39) 김윤기, 같은 글, 동아일보, 1930년 9월 28일자

과 장수, 화합, 육아 등 인생의 기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며 대지의 선정은 그것이 주택 내의 정원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세, 지형, 지질, 수량과 수질, 환경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대지의 양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길룡은 아무리 설비가 완벽하더라도 뜰이 없는 주택은 조금의 가치가 없다고 하며 견해를로는 한국의 실정상 4할 정도가 이상적임을 주장한다.⁴⁰⁾

주택배치방법에 대하여 박길룡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우리 나라의 住家건물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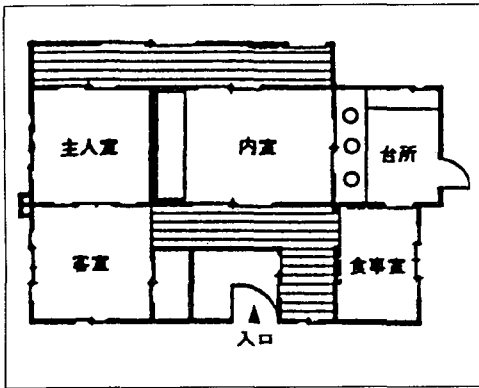


그림 5. 김윤기의 건강주택안

치방식에는 '中庭式'과 '集中式'이 있는 바 대규모의 주택에서는 중정식이 가능하나 소규모의 주거에서는 집중식이 보다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즉 집중식은 실과 실의 통행을 복도로 연결하고 공지의 여유가 있으므로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배치방법인 중정식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건물형태를 矩形으로 하며 凹凸부가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건축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박동진도 보다 합리적인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평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어떠한 매스(mass)를 형성시켜 정원을 확보할 수

40) 박길룡, 주택건축의 기형적 동향, 200쪽.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⁴¹⁾ 주택에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식으로 평면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운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의 공통적인 주장은 이러한 집중식 평면의 내부구성에 관한 것이다. 집중식 평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현관과 복도를 도입하고 기능에 따라 주택의 내부공간을 구분 배치하자는 것이다. 박길룡은 주택의 공간을 '주거부분'과 '종속부분' 그리고 '교통부분'으로 구분하고,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을 각각 5할 정도로 배분하여 주거부분은 남향·동향 또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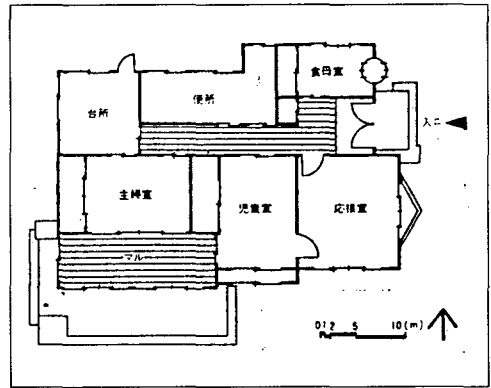


그림 6. 박길룡의 주택개량안⁴²⁾

동향에 면하게 하고, 종속부분은 북향·서향 또는 서북향에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 남측에 정원을 둘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⁴³⁾ 이와 함께 박길룡은 전통주택이 가지고 있는 각실 간의 교통에서 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집중식 평면의 채택과 함께 일본식 현관을 모방하기를 제안한다. 서양식보다는 신을 현관에서 벗는 일본식이 우리 현실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⁴⁴⁾ 김윤기가 가족이 항상 거처하는 방은 동남향으로

41) 박동진, 같은 글, 동아일보, 1931년 3월 20일자

42) 박길룡, 주택개선 1안, 『신동아』, 1936. 8.

43) 박길룡, 在來住家の 개선에 대하여 (최순애, 같은 논문, 114-127쪽)

44) 박길룡, 같은 글 (최순애, 같은 논문, 118쪽)

하고, 객실이나 서재 같은 곳은 서북쪽도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박길룡과 같이 주거부와 종속부를 구분·구성하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들이 새로운 문화주택으로 제안하고자 한 것은 결국 현관과 속복도를 도입하여 현관에서 복도를 통하여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택 내부를 거주부분과 종속부분을 나누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집중식 평면을 구성하자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이 당시 일본과 한반도에서 건설되고 있던 속복도형 일식주택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을 앞의 <그림 1, 2, 3>의 속복도형 일식주택과 비교해 보면 극히 유사한 평면구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김윤기의 건강주택안과 <그림 6>의 박길룡의 문화주택안을 보면 집중화된 평면의 채택과 함께 그러한 평면의 집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현관과 속복도의 도입이 눈에 띈다. 현관을 들어서면 주거공간은 속복도를 중심으로 향이 좋은 남쪽에 아동실과 안방이 위치하고 그 반대편에 욕실과 식모실, 주방 등의 종속공간이 놓여진다. 속복도형 주택의 기본적인 구성방식이다. 아동실이나 식사실이 등장하고 있어 주거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응접실 혹은 객실의 존재는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응접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에 일본식의 반침이 보이는 것과 함께 전통주택의 대청은 사라지고 대신 안방이나 주부실의 남쪽에 유리문이 달린 뒷마루가 놓이고 있는 것도 속복도형 일식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특징이다.

‘우리의 장구한 생활이 낳은 재래형식을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양식의 구축법을 구성수단으로’ 한 새로운 문화주택을 제안하고자 하였지만 여기에서 ‘과학적인 양식의 구축법’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서 진행된 주

택근대화의 산물인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선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4.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인의 주택

『朝鮮と建築』에 평면이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주택은 <표 1>에서처럼 모두 10채이다. 한국인 건축가로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대부분 박길룡의 설계이긴 하나 준공시기가 대부분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고 주택에 관한 설명과 평면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1930년대 한국고급주택의 경향을 알아보는 데에는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주택은 모두 그 규모도 주택개량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면들보다 크고 서구화의 정도도 앞선 것이 대부분이다. 달리 생각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잡지에 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2절에서 알아보았던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몇 채의 평면을 보도록 하자.

표 1.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인의 주택

건축주	건축가	구조 및 면적	년도
우종관	K.E生	벽돌조 지상2층	1928
김연수	박길룡	철근콘크리트조 2층 1층:78.35평 2층:38.47평	1929
우종관	多田工務店	벽돌조 지상 2층 1층:33.93평 2층:18.89평	1931
김명진	박길룡	철근콘크리트조 2층 1층:38.97평 2층:27.17평	1931
윤씨	박길룡	벽돌조 2층 1층:43.8평 2층:31.8평	1938
김명하	박길룡	지상2층	1940
미상	미상	목조 지상1층	1940
이씨	박길룡	지상2층	1940
김용제	김용제	벽돌조 지상2층 1층:90평 2층:36평	1940
청수일영	미상	지상2층	1942

4-1.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주택의 평면특징

(1) 金季洙 주택

1929년 성북동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대식 2층 주택이다. 『朝鮮と建築』에는 설계자로 '京城 P生'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길룡을 말하는 것이다. 박길룡이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내직의 형태로 설계한 주택이다. 1층이 78.35평, 2층이 38.47평 지하층이 7.8평 모두 124.62평이다. 1929년 6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준공되었다.

주현관과 가족용의 내현관이 분리되어 있고 주현관에 인접하여 객실과 書生室⁴⁵⁾ 및 식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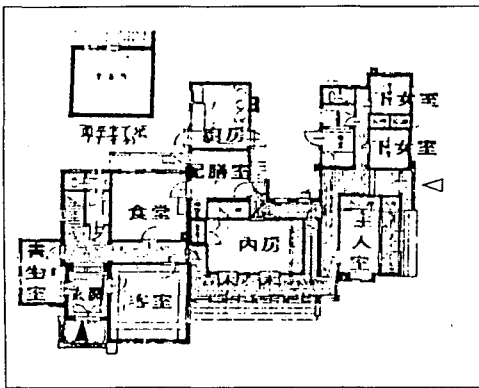


그림 7. 김연수 주택 평면도⁴⁶⁾

갓북도형의 구성을 보여준다. 내방과 주인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 전통적인 내외공간의 수용을 보여준다. 주인실이 내현관 쪽에 있고 내방이 접객공간과 인접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속북도형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인다. 현관과 복도로써 각 실이 연결되고 내현관이 따로 있는 것도 그러하지만 방마다 일본식의 반침이 보이고 주거공간과 접객공간은 중문을 달아 구획하고 있는 것도 속북도형에서 볼 수 있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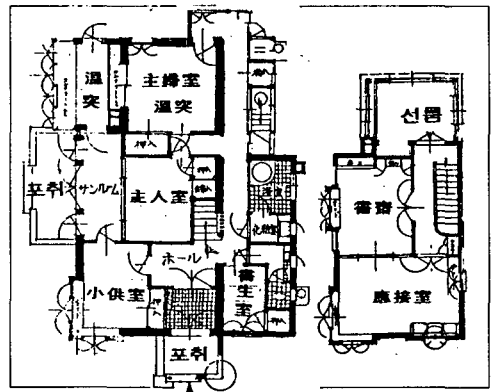


그림 8. 우중관의 계동 주택 평면도⁴⁸⁾

있는 것은 건축주인 김연수⁴⁷⁾의 사회적 위치로 보아 빈번한 접객이 주택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다. 자유롭게 펼쳐진 각 실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속북도가 도입되는데 내방 앞은

(2) 禹鍾觀 주택

『朝鮮と建築』에는 우중관의 주택이 두 채 실려 있다. 하나는 1928년 가회동에 건설된 和洋折衷式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벽돌조 2층 주택이고 또 하나는 1931년 계동에 건설된 근대식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2층 주택이다. 『朝鮮と建築』을 보면 우중관의 주택 대지가 가회동과 계동에 걸쳐 있는데 우중관이 私財로 가회동과 계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한다.⁴⁹⁾ 따라서 우중관의 주택이 두 채 소개되는 것은 1928년 먼저 가회동 쪽에 한 채를 신축하고 장성한 자녀의 분가라든지 하는 이유로 계동 쪽에 한 채를 더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1931년의 주택에 부엌이

45) 일본주택에서 학령기의 청년으로 주인의 손님접대와 심부름을 도와주는 사람을 서생이라 하는데 서생실은 서생이 거주하는 방으로 보통 접객공간과 가족공간의 사이에 있다.

46) 『朝鮮と建築』 제8집 12호, 口會

47) 김연수는 동아일보의 사주로 해방 후 부통령을 지낸 金性洙의 동생으로 1921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京城紡織(株)사장, 朝鮮信託·朝鮮貯蓄銀行(株) 감사, 朝鮮書籍印刷·昭和麒麟麥酒(株) 取締役, 三養社(自) 대표 등을 지낸 바 있고 조선공업협회 부회장과 강점 말기 각종 친일단체의 임원을 지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성향의 한국인 자본가이다. 그는 일제에 협력한 공으로 증추원 참의원을 지내면서 학병을 권유하는 등의 친일 행위로 해방 후 반민특위에 회부되기까지 하였다.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참조

48) 『朝鮮と建築』 제11집 2호, 21-22쪽

49) 『朝鮮と建築』, 第8輯 2號,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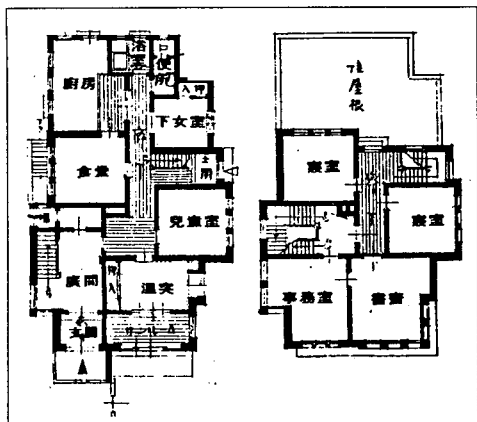


그림 9. 김명진 주택 평면도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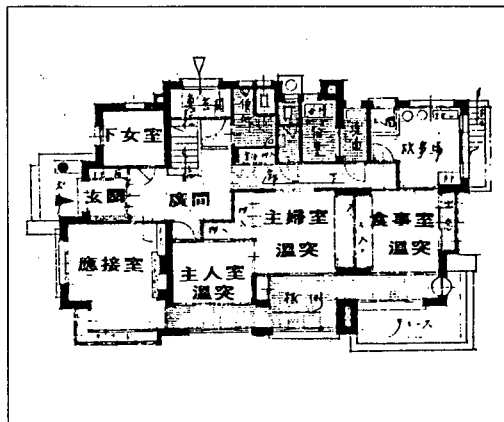


그림 10. 윤씨주택 평면도52)

나 식당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대지 내에 두 채의 주택이 있고 식생활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1931년의 계동주택만 보도록 하자. 계동에 지어진 우종관의 주택은 1931년 6월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되었다. 지하층 3.47평, 일층 33.96평, 이층 18.87평으로 모두 55.3평의 벽돌조 2층 주택이다. 주부실만 온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방들은 라지에타를 이용한 온수난방방식이 채용된 근대식 주택이다. 설계와 시공은 多田工務店⁵¹⁾에서 했다.

일본인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 그런지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쪽으로 난 현관을 들어서면 동서로 난 속복도를 경계로 남쪽에 아동실과 주인실, 주부실이 있고 북쪽에 서생실, 화장실이 있다. 주인실과 주부실의 남쪽에는 선룸(sun room)과 온실이 있고 선룸 앞으로 포취가 있어 정원과 연결된다. 속복도의 서쪽 끝에 주부실에 인접하여 내현관이 보인다. 주택 내부에 부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식사를 같이 하는 집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전형적인 속복도형 일식주택과 다른 점은 현관 옆에 응접실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2층으로 응접실과 서재가 올라간 점이다. 속복도형 주택에서 통상 응접실이 있는 자리에는 아동실이 놓여져 있다. 가족중심의 친일보한 주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인실과 주부실이 분리된 것도 전통적인 내외법의 영향과 함께 아동실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실화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식 반침은 방마다 있다.

(3) 金明鎭 주택

1931년 4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된 박길룡이 설계한 주택이다. 서울 관훈동에 있으며 지하층 4.33평, 1층 38.97평, 2층 27.17평의 합계 78.68평 규모의 2층 벽돌조의 평지붕을 가진 근대식 주택이다. 앞의 계동의 우종관 주택과 같이 아동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고 2층으로 응접용의 사무실과 서재를 올려 1층을 가족중심의 공간으로 꾸몄다. 실내 계단이 2개소인데 현관에 인접한 계단은 사무실 전용이다. 사무실 부분은 1, 2층 모두 중문을 달아 거주공간과 구분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진입하는 현

50) 『朝鮮と建築』 제11집 7호, 30쪽.

51) 多田工務店은 1915년 多田順三郎이 창설한 회사로 三越백화점, 제일은행본점, 경성재판소, 경성중앙전화국 등을 시공하였다. 설계도 겸하여 『朝鮮と建築』에만 해도 9개의 주택이 수록되어 있다. 1929년 합자회사로 전환하였고 新京에 지점을 두었다. 『昭和10年 朝鮮請負年鑑』, 朝鮮經濟日報社, 1935, 185-189쪽 참조

52) 『朝鮮と建築』 제18집 3호, 72쪽

관부분도 담을 설치하여 주거부분의 정원과 구분하고 있다.

동북에서 남서방향의 속복도를 경계로 남쪽에 온돌방과 아동실, 북쪽에 주방과 욕실, 서남쪽으로 식당, 광간, 현관과 계단실 그리고 동쪽에 하녀실이 놓여 있다. 2층의 남쪽에 사무실과 서재가 있으며 북쪽과 서쪽에 침실과 계단실이 위치한다. 속복도의 채용과 함께 주택의 방위에 따른 실 배치의 합리성을 볼 수 있다.

(4)尹씨 주택

1938년 준공된 서울 신당동에 있던 박길룡 설계의 주택으로 1층 43.8평, 2층 31.8평 규모의 2층 벽돌조 주택이다. 박길룡의 주택 중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주택으로 주인실, 주부실 등의 실명과 온돌난방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이다.

주택 중앙에 속복도가 있고 한쪽 끝은 현관, 다른 쪽 끝은 취사장과 식사실로 연결되는 것 속복도를 중심으로 남측에 거주공간, 북측에 욕실·변소 등의 종속공간이 놓여지는 것, 가족용의 내현관(裏玄關)이 따로 있는 것, 주현관 옆에 양식의 응접실이 있는 것, 주인실과 주부실이 잇달아 있어 찌즈끼마형의 실 구성을 보여주는 것, 주인실 등의 남쪽에 뒷마루가 있고 테라스를 거쳐 정원으로 연결되는 것 등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구성 그대로이다. 2층에 다다미 10침 규모의 자시키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까지 하다.

(5)金明夏 주택

<그림 11>은 1940년 낙원동에 건설된 김명하⁵³⁾의 주택이다. 건축주인 김명하가 성진에 제재소를 경영하는 관계로 주택에 낙엽송이 풍부하게 사용되었고 벽과 대문은 변색벽돌로 치장하였다 한다. 전통주택과 속복도형 일식주택이 결합된 평면을 보여주지만 외관은 경사가 급한 모임지붕이 있는 양식이다. 『朝鮮と建築』

에는 건축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박길룡의 설계라고 하기도 한다.⁵⁴⁾

마당을 에워싸고 ‘ㄷ’자 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넌방과 온돌방을 경계로 오른쪽은 현관과 응접실의 접객공간, 왼쪽은 대청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가족공간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두 공간은 뒷마루로 연결되는데 건넌방과 온돌방의 앞에 증문이 있어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뒷마루 앞에 테라스가 있고 정원으로 연결된다.

가족공간의 구성은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전통적인 구성이다. 현관은 따로 없고 마당에서 대청으로 진입한다. 대청과 뒷마루는 유리문을 달아 실내화하고 있다. 안방의 뒤편으로 주방과 욕실이 있으며 속복도가 있어 부분적인 속복도형의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안방 앞에 선룸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어 당시 문화주택의 한 유행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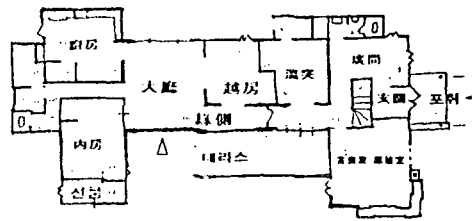


그림 11. 김명하 주택 평면도⁵⁵⁾

(6)某씨 주택

1940년도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일절충식 주택의 평면이다.

53) 1941년 10월 결성된 강점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臨戰保國團의 평의원 중에 김명하의 이름이 보인다. 김성수·김연수는 상무이사이었다. 임종국, 같은 책, 231-234쪽

54) 임창복, 앞의 논문

55) 『朝鮮と建築』 제19집 1호, 新築圖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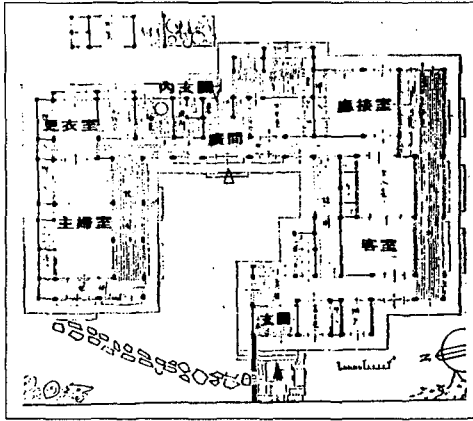


그림 12. 모씨 주택 평면도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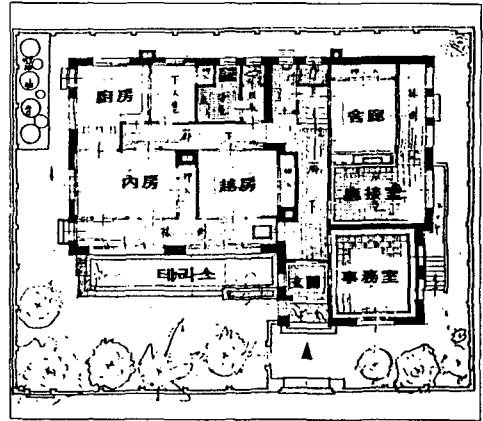


그림 13. 이씨 주택 평면도57)

전통주택의 칸잡이법을 지키면서 일식주택과 절충된 예로 소개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 알 수 없다.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사진을 보면 장대석 위에 화장벽돌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은 목조 1층 기와집이다. 김명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정을 둘러싸고 ‘ㄷ’자 형태로 평면을 구성한 후 남쪽은 주인실, 객실, 응접실 등의 주인과 접객공간으로 북쪽은 주부실이 있는 가족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한 주택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두 공간은 역시 유리문을 단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주인과 접객공간은 서쪽으로 난 현관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진입공간에서 안채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내외벽이 세워져 있다. 현관 옆에는 서생실과 변소가 있다. 속복도형 일식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다. 뒷마루로 응접실과 주인실, 객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객실과 응접실에는 양식의 가구가 놓여지고 주인실과 응접실에 반침이 보인다.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실내사진을 보면 주인실에 일본식의 도꼬노마와 타나가 있는 자시끼의 의장이 보인다. 접객공간의 남쪽에는 넓은 뒷마루와 일광욕실이 있다.

김명하 주택에서 보이던 대청은 사라지고 주부실 앞에 넓은 뒷마루가 있을 뿐이다. 별도의 현관은 없고 섬돌의 위치로 보아 마당에서 廣間과 주부실 앞의 뒷마루로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관은 접객을 의식한 격식과 관계깊은 요소로 인식되어진 것일 것이다. 광간 뒤쪽으로 장독대로 나가는 내현관이 따로 있다. 욕실과 변소는 실내화되어 있으며 여중실 뒤로 부엌이 보이는데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면적이 작다. 평면도에 아이들 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별도의 주택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7) 이씨 주택

서울 송동에 있는 박길룡의 1940년도 설계로 알려져 있는 주택이다. 대지는 100평으로 남쪽에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삼면은 주택으로 둘러싸인 벽돌조 2층 주택이다.

현관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남북으로 난 속복도를 경계로 동측의 가장 및 접객공간과 서측의 가족공간으로 나뉘어지며 정원도 내외벽을 쳐 들을 구분하였다. 가장 및 접객공간은 양식의 사무실과 응접실 그리고 사랑이 놓여지고 서측의 가족공간은 주택 가운데로 난 속복도의 남쪽에 안방과 건넌방, 북쪽에 주방, 하인

56) 『朝鮮と建築』 제19집 2호, 新築圖版

57) 『朝鮮と建築』 제19집 2호, 圖版

실 및 욕실과 변소가 위치하는 구성이다. 사랑과 안방 및 건넌방의 앞에는 툇마루가 있으며 방에는 반침이 부설되어 있다. 응접실과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방은 모두 온돌이다. 전통주택의 사랑채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으로 압축되어 응접실과 함께 접객공간을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2.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주택에 나타나는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주택에서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은 그것이 근대식이건 절충식이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내에 일본식의 자시끼의장이 나타난다든지 다다미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주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 하더라도 평면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구성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주택에 나타나는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우선은 집중형 평면의 채택과 함께 나타나는 현관과 속복도의 등장 그리고 속복도를 중심으로 한 거주부와 종속부의 구분이다. 평면을 집중화하고 내부 동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외없이 속복도를 도입하고 있다. 평면이 집중화되고 속복도가 생기면 주택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현관이 필요하게 되고 현관이 속복도와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전통주택과 달리 폐쇄적인 외정형의 집중식 평면을 구성하게 되면 주택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동선의 결절점이 필요하게 되고 주택 내부에서 신발을 벗는 우리의 생활습관에 일본식 현관이 가장 수용하기 적절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속복도와 현관의 도입으로 주택 평면의 집중화를 가능하게 하고 거주부분과 종속부분을 속복도를 경계로 구성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평면구성방법이긴 하나 한국근대주택은 그 선례로서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통하여 근대성과 합리성을 취하고자 피하

고자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양식 응접실의 부가와 접객공간과 가족공간의 구분이다. 속복도형 주택의 기본적인 평면구성방법인 이것은 전통적으로 접객을 중시하고 내외공간을 구분했던 우리 민족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요소였을 것이다. 전통적인 사랑의 존속에서부터 접객공간과 가장의 공간을 중시하는 평면형과 가족위주의 평면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이나 접객공간과 가족공간을 구분하는 속복도형의 공간구분방법은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내현관을 따로 두는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구성법도 이런 면에서 거부감없이 수용된 요소일 것이다. 주택 내의 접객과 가족공간의 구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원에 내외벽을 쌓아 옥외공간까지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내외구분의 주의식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근대주택의 평면에서 속복도가 나타나고 하여 이것이 꼭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선례로 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평면의 집중화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도시화와 근대화의 열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고 속복도와 현관도 집중화된 주택 내부의 동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특징이 일식주택 특유의 요소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한국주택들이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선례로 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자시끼와 쓰기노마가 주택의 중앙에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한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전통주택에서도 방들이 장지문으로 연속 배치되는 것은 볼 수 있으나 주인실과 주부실 등 내외가 구분되어야 할 방이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주택의 중앙부에 연속되는 경우란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실명은 일식주택과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택에서 중앙에 주실이 두 개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복도형의 일식주택의 특징인 찌즈끼마형의 실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쫄까마형의 방배치와 함께 주실의 앞쪽에 툇마루가 놓이는 것도 일식주택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끔 김명진씨 주택이나 이씨 주택처럼 선룸이나 일광욕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나 그 위치나 형태는 대동소이하다. 이것을 전통주택에서 마당을 향해 발전한 툇마루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툇마루의 위치나 크기, 툇마루 앞에 테라스가 놓이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옥외공간이 더 이상 전통주택의 마당이 아니라 정원인 것을 함께 생각하면 아무래도 일본식 엔가와(緣側)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외 오시이레(押入) 또는 반침이라는 이름의 수납공간이 방마다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소하기는 하나 전통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일식주택의 요소이다.

그러나 이렇게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통주택의 주공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김명하의 주택과 모씨 주택처럼 전통주택의 연장선상에서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씨 주택에서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주택의 사랑채가 존속하고 있는 것 혹은 주부실과 주인실의 구분이나 내외벽의 사용 등 전통적인 내외공간의 구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전통적인 주생활을 바탕으로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구성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의 서구화는 전반적인 경향이다. 욕실과 변소의 실내화는 예외없이 실현되고 있으며 온돌을 고수하고 있지만 응접실이나 식당에서는 의자와 함께 온수난방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실과 식당의 등장은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주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통주택에서 안방의 연장이거나 내외구분의 한 요소로 볼 수 있겠으나 식당과 아동실의 등장은 확실히 근대적 주의식이 나타난 결과이다. 아동실의 등장은 가장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개실의 분화라는 점에서, 식당의 등장은 침식의 구분과

실별 기능의 분화라는 점에서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1930년대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주택과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에서 나타나는 일식주택의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한국의 근대주택과 주택개량안이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근대적인 주택의 선례로 하여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구성방법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과 한국의 근대주택이 일식주택의 구성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그것이 한국인 건축가와 건축주의 친일적 성향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근대화는 국제적인 문화이식 과정이다. 비록 일제강점기 문화이식의 조건이 강요된 것이긴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이식을 토착화해 나가는 우리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한국주택에 나타나고 있는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특징들은 그것이 일본주택 재래의 것이 아니라 일본주택이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일본주택에 도입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그토록 많은 양의 일식주택이 한반도에 이식되었고 아마도 그 중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주택에 영향을 준 것은 전통적인 일식주택이 아니라 일식주택이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된 속복도형 일식주택이었고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평면특징 중에서도 합리성과 근대적인 주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 서구주택의 장점을 받아들여 근대화된 것들이었다. 집중식 평면과 속복도가 그러하고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의 구분, 현관과 식당과 아동실의 등장 등 모두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주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근대주택은 속복도형을 그러한 근대성을 가능하게 하는 평면구성방법의 하나로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서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당한 식민지 상황에서 비록 일식주택이 선진주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주택이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일식주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대성과 합리성이었던 것이다. 한국주택이 영향받은 것은 속복도형이라는 일식주택이 아니라 속복도형이라는 주거유형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주의식과 합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대중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완전한 근대적인 주양식의 성립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과 한국의 근대주택은 주거영역의 구분, 집중화된 평면 구성, 개실의 기능분화, 입식화된 식당의 등장, 현관과 속복도의 도입 등 근대화된 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한국근대주거사의 중요한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일식주택을 선례로 하여 성립되긴 하였지만 한국 근대주택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內庭型에서 外庭型으로 변화하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주택의 근대화는 대단히 급속한 것이었고 그것은 주로 서구주택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서 이러한 급속한 변화라 변화란 드문 일이다. 아무래도 서구주택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이식된 일식주택은 한국현대주택에 나타나는 근대주택으로서의 요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한국주택의 서구화와 근대화는 일식주택의 영향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건설하였던 속복도형 일식주택은 광복 이후에 그대로 한국인의 주택이 되었다. 일본식의 실내의장을 가지긴 하지만 서구화된 주택이 그대로 한국주택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을

서구주택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은 한국주택의 근대화과정과 동향을 한 면만을 보는 것이 되기 쉽다.

한국의 현대주택은 엄청나게 변모하고 있다. 주택동향이나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면 단순히 현대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근대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주택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향후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다. 한국전통주택과 현대주택을 일식주택을 매개항으로 두고 연결해 보는 것은 한국주택의 근대화 과정과 동향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開闢』第7號, 第23-24號
『新東亞』2卷 10號(1932. 10.), 5卷 8號(1935. 8.), 6卷 8號(1936. 8.)
『朝光』1935. 11., 1937. 6., 1937. 9.
東亞日報
朝鮮日報
大韓住宅公社 20年史 編纂委員會, 『大韓住宅公社 20年史』, 大韓住宅公社, 1979
서울大學校 建築學科, 『韓國近代建築研究』, 油印物, 1987
孫世寬, 『都市住居形成의 歷史』, 悅話堂, 1993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社會相研究』, 一志社, 1996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 冶庭文化史, 1966
, 『韓國現代美術史(建築篇)』, 同和出版社, 1978
金宣宰, 韓國近代都市住宅의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論文, 1987
金晶我, 日帝時代 住宅改良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碩士論文, 1992
金泰永, 韓國開港期 外人館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論文, 1990
文洪吉, 開化期 以後 韓國傳來住居建築의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論文, 1982
李賢姬, 韓國에 있는 日式住居의 變遷과 그 影響에 관한 研究, 漢陽大學校 博士論文, 1993
崔珣愛, 朴吉龍의 生涯와 建築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論文, 1981
金蘭基·尹道根, 日帝의 住居遺産과 美軍政期 住宅事情 考察(I)(II),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7. 10, 1987. 12.
宋律, 韓國人 建築家의 形成과 後援者, 『建築歷史研究』第3輯, 1993. 6.
李榮珠·李英鎬, 開化期 以後 韓國傳來住宅의 變化要因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第12輯, 1986. 12.
李英鎬, 開化期 以後 韓國都市住宅의 變遷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8. 10.
任昌福, 日帝時代 韓國人建築家에 의한 住居近代化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91. 10.
朱南哲, 李朝末부터 1945年度까지의 韓國의 住宅變遷, 『大韓建築學會誌』, 1970. 12
大野勝彦, 『都市型住宅』, 工業調查會, 1979
都市住居研究會, 『異文化의 葛藤と同化-韓國における「日式住宅」』, 建築資料研究社, 1996
木村德國, 方法論的序章,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19, 1958. 7.
,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樣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21, 1959. 5.
, 大正時代の住宅改良と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18, 1958. 5.
, 昭和初期の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展開と融合,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20, 1958.12.
, 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樣式の史的位臚, 『北大工學部研究報告』No.21, 1959. 5.
武井豐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1994
扇田新 外 9人,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平井聖, 『圖說 日本住宅の歷史』, 學藝出版社, 1980
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on the Korean modern dwellings and Korean architects' proposals for modern dwellings in the time of 1930's

Ahn, Sung Ho

(Architect, TCA Architects & Planners)

Kim, Soon 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a search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dwellings implanted into Korea in the time of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ts influences on Korean modern dwellings especially in the time of 1930's.

At the early stage of the colonial time(1905~1919),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were implanted into Korea for the Japanese official residences.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 was an urban modern dwelling compromised between Japanese style and western style and distinguished by an outer-court type plan, Japanese entrance hall, central corridor and western style reception room. After the 1920's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have spreaded itself and became a prototype of a modern dwelling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have influenced on the Korean high class dwellings and Korean architects' proposals for modern dwelling in the time of 1930's.

By the implantation and spread of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Korean modern dwellings at the same time have affected and undergone transformation. The aspects of transformation were ; The outbreaking of the Japanese style entrance and central corridor, the transformation of MaDang from the inner court with a function of circulation into the outer court garden with plants and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dwellings from the rural inner court type into the urban outer court type.

The central corridor type Japanese dwellings implanted into Korea in the time of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akes function as a precedent of a modern urban dwelling to Korean and makes Korean dwellings transform from the rural inner court type into the urban outer court type.